

제 91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03.31)

후지타츠클루의 전쟁화

김용철

前성신여자대학교교수

후지타 츠클루가 활동하던 20 세기 초, 1939 년 일어난 제 2 차 세계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참혹했던 전쟁으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주요 3 국 중 하나였다. 전쟁시 일본의 미술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쟁에 협력을 했는데, 파시즘체제 아래 권력을 옹호하거나 민중을 선동했고, 종군기록화를 제작함으로써 실제 전투장면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이 패전하면서 15 년간의 전쟁 속의 미술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져갔다. 사실 일본인들에게 전쟁 책임의 문제와 패전에 대한 논의는 금단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후지타 츠클루 역시 미술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일본에서는 근래에 들어서 겨우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유는 물론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화가로서 전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본다 이후 후지타는 1933 년 일본으로 돌아가 파리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일본의 화단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는 일본이 제 2 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종군화가로서 전쟁기록화를 그렸는데, 패전 후 그는 전쟁에 협력한 예술가로 혹독한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전쟁화로 인한 비판 이후 프랑스로 이주한 후지타가 전쟁화 이후 즐겨 그린 주제는 어린 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 속 아이는 귀여운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섬뜩함을 느끼게 할 만큼 염세적이고 차갑다. 전쟁을 겪은 아이들.세상의 추악함을 경험한 아이들은 더 이상 천진난만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후지타는 전쟁을 겪은 아이들을 전쟁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한 스스로의 삶과 오버랩시킨다.

<Q&A>

Q. 후지타츠클루의 전시회를 여러 번 다녔었는데, 특별히 전쟁화에 대해서 크게 느낀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후지타가 종교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더 강조된 전시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

A. 후지타 츠클루의 그림을 전시회에 가서 보면, 전시회의 전시 및 정렬 방식에 따라, 그렇게 느끼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후지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전쟁에 대한 시각외에도 다양한 인생의 요소들에 대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후지타를 이야기할 때, 전쟁을 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만큼 그는 전쟁에 대한 많은 생각을 그림으로 남겼다.